

담당_홍선화

중앙회, 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 참석

대형유통점 규제 완화 대처방안 마련 시급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에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이 참석해 대형유통점 규제 완화에 대한 제과업계 의견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증가 추이에 있는 대형유통점의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일석 사무총장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 일환으로 자영제과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업체와 SKT와의 제휴카드 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일정 기간 대형유통점의 출점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지부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빵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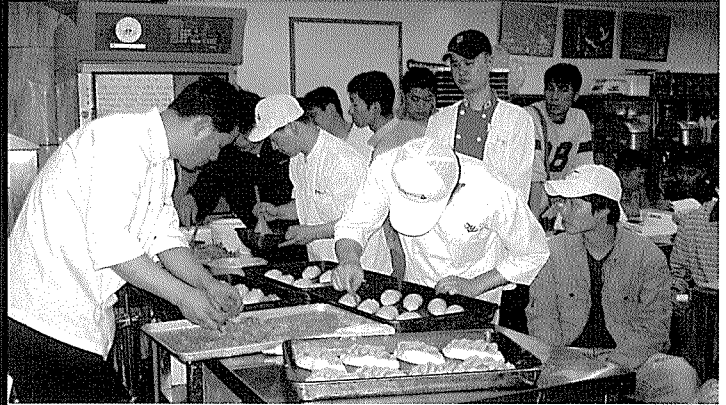
춘천시지부(지부장 윤장훈)는 지난 9월 29일 춘천시에 위치한 시립양로원과 아동시설 등 9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빵을 전달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을 나눴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천한 춘천시지부는 분기별로 봉사활동이 이어지자 회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따뜻한 광경이 연출됐다.

윤장훈 지부장은 "몇 번 얼굴을 익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번 봉사활동에 동참해서 아낌없이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분들과 함께 어렵고 소외된 지역 주민을 돌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rism

인천광역시지회

할로윈데이 이벤트 제품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배인필)는 지난 10월 21일 경인제과제빵학원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해 인천 제과 기술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어린이들의 축제로 유명한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할로윈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호박을 이용한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여 제과점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신호탄 역할을 했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힘겨워하는 인천지역 제과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실연을 맡은 안창현 부회장이 할로윈데이를 이벤트데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체질을 맞아 값싸고 영양소도 풍부해 고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호박빵 14가지 제품을 직접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명의 참석자 전원에게 '웰빙 호박빵 페스티벌'이라고 씌어진 현수막을 증정해 각 제과점에서 할로윈 데이에 맞춰 현수막을 동시에 게시해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지회는 앞으로도 마케팅 기법을 접목하여 현장에서 바로 응용하여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갖가지 세미나를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배인필 지회장은 "가득이나 침체된 경기로 힘겨워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과점에서 바로 응용해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과점 매출을 향상시키는 제품 개발은 물론 마케팅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회장단,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연장 방문

제과제빵직종 정식 종목 채택 노력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된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29일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임영진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 홍종훈 기술지도위원장, 정만규 대전광역시 지회장 등이 대회장을 방문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홍의석 기술위원장과 미팅을 갖는 한편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영모 회장은 먼저 충남기계공고에 마련된 대회 본부를 방문해 홍의석 기술위원장과 만나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제과제빵 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이 대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제과제빵 직종 경기가 열리는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제과제빵 직종은 이미 국제기능올림픽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명의 선수가 출전해 2003년에는 동메달을, 2001년과 2005년에 우수상을 획득했으나 안타깝게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출전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과제빵 실연 부스를 마련하는 등 제과제빵 종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왔다.